

“서울 스마트 인프라 구축, 시민 알권리·디지털 기본권 보장”

CES 2020

박원순 서울시장 기조연설

“기술은 사람 위해 활용될 때 가치” 스마트 시티, 사람 삶에 맞춰 발전 국내 기업 부스 돌며 체험·세일즈

“어려움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을 벗어나는데 있다”

박원순 시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0’ 스페셜 세션 기조연설에서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로 운을 뚫었다.

박 시장은 “기술은 사람을 위해 활용될 때 가치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의 혁신뿐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와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차 산업 기술을 어떻게 도시행정에 접목시켜 제도화하고 시민들의 삶에 녹여낼 것인가가 중요한 화



박원순 서울시장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석해 디지털 시민장실을 시연하고 있다.

두가 됐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은 스마트시티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화재·재난·교통 등 서울의 주요 현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알렸다.

도시 전역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서울시에 설치된 수천개의 사

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도시데이터를 수집,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스마트시티는 편리한 교통, 깨끗한 환경 등 도시가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면서 사람의 삶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 이후 박 시장은 세계 각국



박원순 시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서 8일(현지시간) ‘스마트시티 서울이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서울시

패널과 토론을 이어갔다. 통화량 빅데이터로 최적의 노선을 도출한 ‘올빼미 버스’, 상암에 구축한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소비·유동인구와 관련된 월 100억건의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도 소개했다.

CES 테크 웨스트에 마련된 ‘서울관’에서 박 시장은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연했다. 재난사고 상황 발생 시 처리 현황과 실시간 교통 상황 확인이 어떻

게 이뤄지는지 보여줬다.

이어 서울관에 자리한 국내 20개 기업의 부스를 돌며 이들이 CES에 출품한 혁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바이어들에게 세일즈했다.

박 시장은 CES의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게리 샤피로 회장과 만나 서울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게리 샤피로 회장에게 ‘CES 서울’ 유치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MICE(세계 3위 도시로서 각종 전시시설, 호텔, 문화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갖췄다”며 “타 도시들에 모델이 될 만한 최첨단 IT 도시로서 CES 개최에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샤피로 회장은 서울의 컨벤션 시설이나 공항 인프라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저녁 CTA 게리 샤피로 회장 초청으로 ‘리더 인 테크놀로지’ 만찬에 참석해 첨단기술분야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쌓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국공립어린이집·종합재가센터 14곳 문 연다

(5곳)

(9곳)

서울시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복지 인프라 확충·개인별 맞춤서비스

올해 서울에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 9곳이 문을 연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생긴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시는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2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센터는 중증뇌병변장애인에 맞는 교육, 돌봄, 건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

해 1300만원을 지원한다. 활동 보조시간은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린다.

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 SOS센터’는 13개 자치구, 228개동으로 확대된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5곳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종합재가센터도 9곳이 추가로 개소해 총 13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2.94% 올리고, 해산(출산)급여는 10만원 늘어난 70만원, 장애급여는 5만원 오른 8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중증장애인에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 문턱을 낮춘다. /김현정 기자

‘국회대로’ 지하화... 상부엔 11만㎡ 선형공원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당선작 선정 광장·커뮤니티센터 등 9개 공간 조성

국회대로가 서울광장 8배 규모의 대규모 선형 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적구창신’(씨토포스 외 4개사)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대로는 서울 서부지역의 관문이자 서울과 경기·인천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다. 1968년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 개통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대로는 지난 반 세기 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됐고 도시를 남북으로 가르며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다”며 “또 하루 최대 19만대에 이르는 차량이 지나면서 삼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소음과 환경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회대로 지상 도로를 지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서울시

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 7.6km 구간이다. 투입 예산 규모는 약 573억원이다.

시는 내년 4월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지하 2층, 총연장 7.53km)을 개통할 예정이다. 터널 공사 막바지 시점인 올 하반기 중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총연장 4.1km)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상부 공원 공사를 시작한다. 2024년 6월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시는 상부 공원을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형태의 선형공원으로 만든다. 총면적은 약 11만㎡(길이 7.6km, 폭 40~55m)로 서울광장의 8배다.

‘적구창신’은 “오래된 기억과 흔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뜻이다. 당선작은 지난 50년간 회색 아스팔트와 소음, 분진으로 기억됐던 국회대로를 다양한 문화와 놀이가 이뤄지는 사람과 자연 중심의 ‘천년의 숲’으로 계획했다. 광장, 키즈파크, 커뮤니티센터 등 9개의 특색 있는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여성 노동자 10명중 3명 월급여 147만원 ↓

서울시 ‘성인지 통계’ 발표 女 저임금 노동자 男의 3배

서울 여성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월급여가 147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일 ‘2019년 서울시 성(性)인지 통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환경, 복지, 정치·사회참여, 문화·정보, 안전 등 10개 부문 45개 영역, 424개 통계 지표로 구성돼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는 27.5%로, 남성(9.6%)보다 약 3배 많았다. 저임금 노동자란 월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중 위소득의 3분의 2인 14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서울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원으로 남성 334만원의 63% 수준이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2014년부터 63~64%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올해 경기도 경제성장률 2.4% 전망... 설비·건설투자 증가”

경기연구원

세계 경기 회복세에 수출 ‘청신호’

2020년 경기도 경제는 2.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지난해 급격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2.2%를 웃도는

2.4%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더불어 설비투자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 대외 불확실성 감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지지효과 등으로 경기도 수출의 성장을 전망했다.

고용과 관련, 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계 신규 채용을 위축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경기도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올해 경기도 경제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 구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경기=박완희 기자 wanhee@